

함평 뱀 생태공원 내년 상반기 개관

郡, 운영비 6억9천만원 편성... 전남도도 일부 지원

전남도의 특수시책사업임에도 운영비 부담 문제로 3년째 표류해온 함평 뱀 생태공원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와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은 내년 본예산에 뱀 생태공원 운영비 명목으로 6억9000만원을 편성, 최근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사업비 2억1500만원보다 3배 많은 액수로, 연간 필요 사업비(9억~10억원)의 70~80%에 이른다.

전남도 역시 "건축비 이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달 17일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뱀 연구와 함께 전남에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며 "초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도 일정기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 보조금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다"고 밝혔다.

운영비 관련, 도비 부담을 기정 사실화 한 셈이다.

'전국 최초', '전국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 공원은 뱀을 소재로 전시와 공연, 체험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국비 117억4000만원과 도비 14억4000만원 등 모두 195억원이 투입됐다.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한 함평군도 자체 예산 63억원을 들었다.

당초 '전설의 뱀'인 아나콘다를 포함해 90여 종 600여 마리의 양서류와 파충류를 선보일 예정으로 1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전시공간 부족"을 이유로 예산 10%를 삭감하면서 195억원으로 늘었다.

몇차례 개장을 연기한 끝에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이번엔 닭과 토끼 등 먹이감 1억4000만원과 인건비 3억여 원 등 연간 10억원 가까운 운영비가 발목을 잡았다.

도는 막대한 건립비에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군은 "재정난으로 정부 지원금도 토해내는 마당에 운영비를 어떻게 전액 충당하라는 것이냐"며 비용 부담을 요구해 왔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간의 운영비 갈등으로 뱀 생태공원 개장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다행히 분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장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영상의 초기 부담을 덜고 관람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수사진 촬영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반기 직원들은 지난 23일 광양시 봉강면 노인요양병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장수기원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에 18호 기업공원 포스코컴텍 조성



광양에 18호 기업공원이 탄생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마동 우봉 카이스빌 옆에 포스코컴텍(대표이사 김진일)이 조성한 기업공원 준공식이 이날 현장에서 열렸다. (사진) 포스코컴텍은 1억4000여 만원을 들여 과과라 1동을 설치하고 가시 나무 등 9종 3000여 주의 나무를 심었다.

기업공원은 기업 및 민간단체가 광양시와 손잡고 도로 개설이나 택지 등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자

투리땅과 도심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공원을 조성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운동이다. 기업공원에는 지금까지 14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17억6500만원을 투입해 3만1844㎡의 공원을 조성했다.

장진호 공원사업소장은 "지구 온난화와 함께 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100호 기업공원 조성을 목표로 도심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 양계사레 연구·교육 중심지로

255억 투입 '닭 경제능력검정 연구소' 착공

해남군은 25일 계곡면 법곡리 부지에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닭 경제능력검정 연구소' 착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해남에 새 동지를 트는 연구소는 30만 4364㎡ 부지에 검정시설 9동, 교육연수원 1동, 부화시설 1동, 참외 등 부대 시설 10여동을 갖추게 된다.

연구소에서는 산란계·육용계 검정, 개발된 종자의 능력 테스트, 친환경 종자 계사의 물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농장경영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습형 현장중심교육의 수요 증가 및 전문연수교육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원에는 연간 6000여명의 연수가 이뤄지는 등 해남지역에서 양계사레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한양계협회는 AI(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인 해남을 최종 부지로 결정해 지난 6월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군 등록 양계농가는 모두 60농가다.

박철환 군수는 "청정지역인 해남에 닭 경제능력 검정연구소가 건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고용으로 고용창출과 연간 검정교육인원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품종 닭 종자개발을 담당하는 (사)대한양계협회의 연구소는 20여년간 경기도 안성시에 터를 잡아오다 규모 확장으로 새 부지를 물색해 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쇼!

함께하는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목포에 '행복호텔' 50호 생겼다

〈숙박시설 개·보수 요금은 모델 수준〉

평화로 유토피아호텔 현판식

숙박시설을 개·보수해 호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모델 수준의 요금을 받는 '행복호텔' 50호가 탄생했다.

전남도는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유토피아 가족관광호텔에서 배양자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김연다 목포시 보건소장, 숙박업협회 도지회장과 유토피아 가족관광호텔 대표 등 숙박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0호 행복호텔 현판

제막식을 지난 22일 가졌다.

행복호텔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일환으로 모델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남도에서 도입해 지난해까지 49개소가 모델에서 행복호텔로 전환했다.

전남도는 50호 행복호텔 현판제막식을 계기로 숙박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행복호텔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 사업비로 업소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행복호텔로 전환하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손님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호텔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이기 위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대 약학대학 설립이여 약학관 오늘 개관

목포대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 추진한 약학대학 설립에 이어 또 하나의 결실인 약학관을 완공해 26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목포대 신축 약학관은 전남도와 목포시, 장흥군, 신안군 등 자치단체와 약학대학 설립추진위원회, 기성회 이사 등 지역사회의 도움과 목포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립됐다.

연면적 4996㎡(1510평)에 지상 5층,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물로 총공사비는 76억원이 투입됐다.

이 곳에는 학생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및 각 전공실무 실습실을 비롯해 공동기기실, 부속약국, 병동약국, 천연약물연구소, 정독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목포대 약학대학은 2009년 9월 약

목포대 약학관 전경.

목포대는 약학관 개관을 기념해 이날 오후 2시 대외협력관 대강당에서 '전연물 유래 생리활성 소재의 최신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목포대 약학대학은 2009년 9월 약

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거쳐 2010년 25명의 정원 배정과 2011년 5명 추가 배정으로 총 30명의 정원으로 2011년 3월 신설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남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대통령 표창

전남도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성폭력주간 기념행사 에서 아동·여성폭력 방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해자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여성 권익 증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추진

해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또한 전남도내 23개소의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해 아동·여성의 성폭력 근절 및 예방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내 427개 초등학교에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 보급했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성의 권익 증진 강화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 결과 여성 권익 증진분야 전국 1위에 올랐고 박준영 도지사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받기도 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정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			